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15-146  
<https://doi.org/10.29212/mh.2024..131.1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 설치와 변천

김민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목 차
1. 머리말
  2. 임시편집부의 설치와 임시편집위원부로 재편
  3. 군사위원회의 설치와 군사학편수위원회의 조직
  4. 한국광복군 창설과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설치
  5.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설치·운영한 편찬기구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920년 임시정부에 처음 군사교재 편찬기구가 조직되는 과정부터 1930년대 군사학편수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940년대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조직과 인적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군사교재 편찬기구 운영이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분석하

였다. 임시정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군사교재 편찬기구에 참여했던 인물의 회고록도 활용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운영했던 군사교재 편찬기구의 존재를 증명하고, 활동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임시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군사교재 편찬기구와 그 변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해방되기 직전까지 군사교재 편찬 기구를 운영하였다. 비록 정식 편제된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유지·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되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보병조전초안』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발행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임시편집위원부, 군사학편수위원회, 군사학편찬위원회

## 1. 머리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외교·교육·문화·의열투쟁 등 독립을 위한 여러 방법과 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군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은 한민족의 군대를 편성하여 일제와 독립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군사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실행한 독립운동 전략의 핵심을 이루었다. 군대조직을 위한 법규를 마련한 것, 육군무관학교 설립을 통해 군사간부를 양성한 것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영국 등과 대일전쟁을 수행한 것 등은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에서 군사 활동 정책을 수립하면서 추진한 것이 또 있다. 바로 군사교재를 편찬·발행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군사교재를 편찬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군사간부와 병사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군사교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재 편찬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1920년 임시편집부를 시작으로 임시편집위원부, 1930년대 군사학편수위원회, 1940년대 군사학편찬위원회를 운영한 것이다. 이 조직들은 임시정부의 상황과 국제정세

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되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5월, 임시정부 군무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은 군사교재 편찬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과 관련된 그동안의 관심과 연구는 『보병조전초안』에 집중되었다. 임시정부는 1924년 5월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이를 통해 『보병조전초안』의 구성과 내용·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고, 임시정부 군사정책의 일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보병조전』과의 비교 연구<sup>2)</sup>, 일본 군사교재와 비교 연구<sup>3)</sup>, 현대 군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sup>4)</sup>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군사교재에 대해 발전적이고 폭넓은 이해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의 연구·발행을 위해 설치한 기구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편찬의 결과물인 군사교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편찬기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sup>5)</sup> 이

1) 김민호, 『기록인(IN)』 3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5, 82~87쪽 ;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육군 군사연구소, 2017, 151~175쪽 ; 김진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韓國老兵會의 『步兵操典草案』(1924)간행과 성격」, 『군사사 연구총서』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135~196쪽.

2) 조필균, 「항일무장독립군 군사교범 『보병조전초안』의 현대적 해석과 군사사학적 함의 : 『보병조전』과 『보병조전초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2권 통권 제14호, 2018, 185~215쪽.

3) 전호수, 「신흥무관학교 군사교범의 탐색-『보병조전』의 한·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38,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9, 73~124쪽.

4) 조필균,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현대적 해석』, 선인, 2021.

5)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필자는 이전에 『보병조전초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보병조전초안』의 구성

런 점에서 임시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군사교재 편찬기구에 대한 정리는 기존 연구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군사 활동 정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제작을 위해 설치·운영했던 편찬기구에 대해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운영되었던 편찬기구의 설치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그리고 편찬기구의 인적 구성과 변화를 통해 조직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임시편집부의 설치와 임시편집위원부로 재편

임시정부에서 군사간부 양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군사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하는 일이었다. 임시정부 군무부에서는 간부와 병사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근대적 군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병사들을 교육·훈련시킬 교재 제작은 필수적이었다.

임시정부는 군사교재의 편찬을 위해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임시편집부(臨時編輯部)가 그것이다. 임시편집부는 임시정부가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1920년 5월 1일 조직한 기구이다.<sup>6)</sup> 임시편집부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 당시 위원장

---

과 내용, 성격을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 임시편집위원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언급하지 못했다. 둘째, 임시편집위원부와 같은 조직이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교재를 편찬하는 기구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싶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제작과 발행이 가지는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4쪽.

에는 윤기섭(尹琦燮)이 임명되었고, 위원에는 김근하(金根河)가 선임되었다.<sup>7)</sup>

임시정부에서 윤기섭을 위원장에 임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에서 학감·교감·교장 등을 맡아 학교를 유지·운영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남다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신흥무관학교에 10년 가까이 재직하며 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sup>8)</sup> 그는 신흥무관학교에 재직할 때, 『보병조전』이라는 군사교재를 만든 경험이 있었다.

김근하는 임시정부의 특파원과 조사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1919년 재령지역 3·1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고,<sup>9)</sup>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몸담게 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황해도 지역 특파원과 조사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다.<sup>10)</sup> 또한 연통제·교통국의 설치, 국내 유력 인물과의 관계 수립, 독립사상 고취, 정세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임시정부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sup>11)</sup> 1920년 1월에는 임시정부 군무부 서기로 임명되어 군사관련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었다.<sup>12)</sup>

조직 초기 이들이 노력을 기울인 분야가 있다. 그것은 군사교재 발간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군사교재 발간과 관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8~9쪽.

8)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육군군사연구소, 2017, 159쪽.

9) 김병조 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76쪽.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2, 301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2008, 65쪽.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72, 305쪽.

1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67쪽.

련된 업무를 명문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920년 10월 8일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규정(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이 제정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 9월, 임시편집부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근하가 1920년 9월 1일부로 면직되고, 같은 해 9월 29일부로 강영한(姜泳翰)과 오필영(吳弼泳)이 새롭게 임명된 것이다.<sup>13)</sup> 기존의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 체제에서 위원 1명이 더 증원된 체제로 발전한 것이었다. 김근하의 면직은 국내로의 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0년 10월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던 백운한·이명서·함일 등과 함께 국내에 잠입하여 평양의 일제 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sup>14)</sup> 새롭게 영입된 강영한과 오필영은 임시정부에서 설립한 임시육군무관학교 제1회 졸업생 출신이었다.<sup>15)</sup> 군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강영한과 오필영은 김근하가 추진하던 업무를 이어서 수행하였다. 이들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군사교재 발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이 그것이다. 임시정부에서는 군사교재 발간을 위해 1920년 10월 8일 교령 제11호로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을 발표하였

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11쪽. 강영한은 대한적십자회 대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1, 2009, 98쪽), 오필영은 임시정부 재무부 서기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2008, 88쪽).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 1975, 301~302쪽.

1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5, 42쪽.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教令 第11號：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

- 第1條 軍事教育에 必要한 教科用 圖書를 編輯하기 爲하여 臨時編輯委員部를 置함
- 第2條 臨時編輯委員部에 下의 職員을 置함  
委員長 1人  
委員 若干人
- 第3條 委員長은 軍務總長의 命을 承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委員을 監督함
- 第4條 委員은 上官의 指揮를 承하여 圖書編輯及 記錄編存과 其他 庶務에 從事함
- 第5條 委員長이 事故가 有한 時는 軍務總長이 指定한 委員으로 其事務를 代理케 함
- 第6條 委員長이 必要로 認하는 時는 軍務總長의 許可를 經하여 囑託員을 置함으로 得함

**附則**

- 第7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함<sup>16)</sup>

교령 제11호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임시편집부는 임시편집위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임시편집위원부로의 변화는 임시편집부의 역할과 기능이 공식적으로 확대·계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임시편집위원부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위원장에는 윤기섭이 임명되었고, 위원들이 선임되어 활동중이었다. 설치 목적은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편집·발행하는데 있었다. 이를 근거로 임시편집위원부는

16)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264쪽.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편집위원부는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번 인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0년 11월 18일 위원 강영한이 면직되고, 1920년 11월 25일부로 장의주(張儀柱)가 새롭게 위원에 임명된 것이다.<sup>17)</sup> 장의주는 평남 강서 출신으로, 을사오적 처단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3·1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펼쳤다. 임시정부에서는 주로 밀정을 처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8)</sup>

1921년 5월에는 위원장 윤기섭의 전보가 있었다. 5월 7일부로 군무부 차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sup>19)</sup> 윤기섭이 군무부 차장으로 옮겨감으로써 임시편집위원부는 실질적으로 오필영과 장의주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장의주가 1926년 12월 13일 임시의정원 비서로 임명<sup>20)</sup>되기 전까지 임시편집위원부를 유지·운영해 나갔다.

〈표1〉 임시편집부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재직기간	경력
위원장	윤기섭 (尹琦燮)	1920년 5월 1일 ~1921년 5월 7일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장,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위원	김근하 (金根河)	1920년 5월 1일 ~1920년 9월 1일	1919년 재령지역 3·1만세시위운동 주도, 임시정부 황해도 지역 특파원·조사원, 임시정부 군무부 서기

1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12쪽.

18) 장의주는 李鐸과 함께 활동하며 일제 밀정인 金秉憲을 처단하였다. 朝鮮總督府, 「上海假政府의 過激派 및 社會主義者와 提携 件, 上海에서 爆彈破裂에 관한 佛國官憲의 의향, 密偵暗殺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鮮人と 過激派 1』, 1920.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106쪽.

2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169쪽.

위원	강영한 (姜泳翰)	1920년 9월 29일 ~1920년 11월 18일	임시육군무관학교, 대한적십자회 대원,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위원	오필영 (吳弼泳)	1920년 9월 29일~	임시육군무관학교, 임시정부 재무부 서기,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위원	장의주 (張儀柱)	1920년 11월 25일 ~1926년 12월 13일	1919년 3·1운동 참여, 중국 망명 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밀정처단 임무 수행,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임시의정원 비서

인적 변화와 함께 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1922년 2월 3일 교령 제3호를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教令 第3號：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1922. 2. 3.)**

- 第1條 軍事教育上 必要한 教科用 圖書를 編輯하기 爲하여 臨時編輯委員部를 置한다.
- 第2條 臨時編輯委員部에 下의 職員을 置한다.
  - 一. 委員長 1人
  - 一. 副委員長 1人
  - 一. 委員 5人
- 第3條 委員長은 軍務總長의 命을 受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副委員長 以下를 監督한다.
- 第4條 副委員長及 委員은 上官의 指揮를 受하여 圖書 編輯及 記錄 編纂 其他 庶務에 從事한다.
- 第5條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時는 副委員長이 代理한다.
- 第6條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할 時는 軍務總長의 認可를 得하여 囑託員을 置할 事를 得한다.
- 第7條 教育上 必要한 教科書及 圖書는 露國 勞農政府의 軍事教育用 圖書 規定에 依하여 作製할 事
- 第8條 大韓民國 2年 10月 8日 教令 第11條 委員規程은 茲에 廢止한다.<sup>21)</sup>

개정된 임시편집위원부규정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졌다.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1개조가 증가한 형태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2조 부위원장직의 증설과 위원수의 증가이다. 임시편집위원부를 효과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조직 확대와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는 군무부에서 추진한 군사훈련 교재인 『보병조전 초안』의 편찬·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제7조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의 군사교육용 도서 규정에 따라 교재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초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임시정부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정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는 다른 열강들보다 식민지·반식민지 해방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22)</sup> 이러한 움직임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가 레닌(N. Lenin)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하고, 레닌이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재정을 지원한 것,<sup>23)</sup> 1922년 1월 소비에트 러시아가 개최한 극동인민대표대회에 다수의 한국 대표들이 참석한 것<sup>24)</sup>은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21)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278쪽.

22)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465쪽.

23) 한형권, 「臨時政府의 對俄外交와 國民代表會議의 顛末」, 『가톨릭青年』 제6권 제7호 통권59호, 가톨릭청년사, 1948, 636~641쪽.

24) 임경석, 「극동민족대회와 조선대표단」,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1999, 44~51쪽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3·1운동과 국제사회』, 선인, 2020, 171~183쪽.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 입장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는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강대국이었고, 우리 민족문제를 이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였다. 이러한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관계가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와 같은 인력의 변화와 법령 개정을 통해 임시편집위원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다. 관련 규정을 보강하였고, 부서원의 증원을 통해 임무의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임시편집위원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교재 제작 업무 준비를 완비할 수 있게 되었다.

### 3. 군사위원회의 설치와 군사학편수위원회의 조직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 산하에 임시편집부와 임시편집위원부를 설치하여 군사교재의 편찬과 발행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증원하기도 하였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임시편집위원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보병조전 초안』이라는 군사교재를 편찬·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1920년대 임시정부의 내부적 문제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대 중반 이래 뚜렷한 독립운동 방향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이념 차이·지역적 파벌·재정의 곤란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1923년의 국민대표회의, 1925년의 이승만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었던 유일당운동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내홍(內訌)이었다.<sup>25)</sup>

국제정세도 임시정부의 사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1931년 일어난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일제는 허위보도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을 이간해 갈등을 부추겼고, 일부 친일 한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sup>26)</sup>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임시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군사정책을 진전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이 다시 활로를 찾기 시작한 건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1937년 7월 7일 일제는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을 일으켜 중국대륙을 침략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sup>27)</sup>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도 전시체제에 맞는 군사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의 설치였다.<sup>28)</sup>

임시정부는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군무부 관할 하에 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sup>29)</sup> 군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군사위원은 유동열(柳東說)·이청천(李青天)·이복원(李復源)·현익철(玄益哲)·김학규(金學奎)·안경근(安敬根)이 맡았다.<sup>30)</sup> 이들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실전경험을 쌓은

25)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53~242쪽.

26) 김용달, 『대한민국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130쪽.

27) 가토 요코 지음·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235~237쪽; 요시카와 요시히로 지음·손승희 옮김, 『중국근현대사』 3, 삼천리, 2018, 200~204쪽.

28)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5쪽.

29)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130쪽.

30) 군사위원 가운데 안경근을 제외한 유동열·이청천·이복원·김학규는 조선혁명당 출신의 군사간부들이었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민

군사전문가들이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다. 군사위원회규정(軍事委員會規定)이 그것이다.

### 軍事委員會規定

第1條 大韓民國臨時政府는 軍務部 管轄下에 軍事委員會를 置함

第2條 軍事委員會는 獨立戰爭에 對한 計劃案을 研究 作成하고 軍事幹部 人材를 養成하며 軍事上 必要書籍을 研究 編纂함

第3條 軍事委員會 委員은 臨時政府에서 任命함

第4條 軍事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内外國 軍官學校 卒業生에 準하되 實地 戰鬪에 相當한 經驗이 有한 者도 委員됨을 得함

第5條 軍事委員會는 三人 以上 七人 以內의 常務委員을 置하고 그 中에서 一人을 選任함

第6條 軍事委員會는 每月 一回의 全委員會와 每月 二回의 常務委員會를 開하되, 開會時에는 臨時主席 一人을 互選함

第7條 軍事委員會는 相當한 資格者를 軍事委員으로 軍務部에 推薦함을 得함

第8條 軍事委員會 開會 時에는 必要에 應하야 國務委員이 列席함을 得함<sup>31)</sup>

군사위원회규정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제2조 군사위원회는 독립전쟁에 대한 계획안을 연구 작성하고 군사간부 인재를 양성하며 군사상 필요서적을 연구 편찬함”이 그것이다. 이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임시정부

---

속혁명당에서 이탈한 조선혁명당 세력을 흡수하였다. 만주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 온 조선혁명당 소속 군사전문가들과 제휴함으로써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역량 강화를 기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최기영, 「李復源의 유학과 재중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012, 190쪽).

3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196~199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52~55쪽.

가 새롭게 군사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인재 양성과 군사교재의 연구·편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점이라 할 수 있다.

군사위원회 설치 이후 임시정부는 새로운 기조에 맞춰 군사정책을 추진하였다. “속성군관학교를 설립하고, 초급장교를 한 기수에 2백 명 양성하여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것이었다.<sup>32)</sup> 이에 대한 예산안까지 통과된 상황이었지만 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다.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임시정부도 진강(鎭江)·장사(長沙)·광주(廣州)·유주(柳州)·기강(綦江)으로 옮겨 다녀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임시정부는 군사교재를 편찬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1938년 장사에 피난해 있는 동안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수위원회(軍事學編修委員會)’를 조직한 것이다.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군사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임위원은 군무부장 조성환(曹成煥)이 맡았고, 유동열·이청천·현익철·이복원·김학규 등을 위원에 임명하였다.<sup>33)</sup> 조성환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으로, 1920년대 대한군정서·대한독립군단·신민부 등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쳤던 인물이다.<sup>34)</sup> 그리고 이청천과 이복원은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을 가졌다. 군사학 편찬 경험이 있는 군사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군사교재 편찬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였다.

3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2005, 305쪽.

33) 애국동지원호회편, 『한국독립운동사』, 1956, 370쪽.

34) 양태석, 「晴簑 曹成煥(1875~1948)의 抗日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7~31쪽.

〈표2〉 군사학편수위원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연령	출신	경력
주임위원	조성환 (曹成煥)	64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신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신민부,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장
위원	유동열 (柳東說)	60	일본 육군사관학교 대한제국군 육군 참령	신민회, 한인사회당, 길림군정서, 고려군정의회, 임시정부 군무총장
위원	이청천 (李靑天)	51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신흥무관학교, 대한독립군단, 고려혁명군관학교, 한국독립군,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회
위원	현익철 (玄益哲)	49	-	서로군정서, 광한단, 통의부, 정의부, 고려혁명당, 국민부
위원	이복원 (李復源)	53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미국 버지니아 군사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위원	김학규 (金學奎)	39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조선혁명군,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학 도서의 편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군사학편수위원이던 김학규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규는 “우리가 장사(長沙)에 있는 동안에도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의 광복군(光復軍) 조직(組織)에 관(關)한 공작(工作)과 군사학(軍事學) 편찬(編纂)에 대(對)한 공작(工作)은 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sup>35)</sup> 군사학편수위원들이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전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韓民)』에도 소개되었다. 『한민』은 임시정부와 한국국민당을 비롯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전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군사학편수위원회의 활동 소식도 알린 것이다. 『한민』은 기사에서 “우리 군사위원회에서는 군사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성립하여 임시정부로 하여금 이를 실시케 하는 동시에 군사에 관한 서적들을

35) 김학규, 「白波自敍傳」,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596쪽.



출판하여 이를 군대에서 사용케 하는 것이 크게 필요한 것임을 느끼고”라고 언급하며 군사위원회에서 군사학 서적 출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지금 군사위원들이 군사학 중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밤낮으로 이를 편찬하는 중이며, 이미 착수한 것은 보병조건·진중요무령·사격교범·유격전술 등이라는 사실도 전했다.<sup>36)</sup> 이처럼 임시정부는 전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학 관련 서적을 정리·편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하였다.

#### 4. 한국광복군 창설과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설치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를 떠난 이래 중국대륙 여러 곳으로 정부 소재지를 옮겨 다니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 정착하였다. 중경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중국정부가 임시수도로 정하고 있던 도시이다.<sup>37)</sup>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임시정부는 이곳에 머무르며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한국광복군 창설이었다. 그동안 인적·재정적 어려움, 임시정부의 피난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군사정책을 중경에 정착하면서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1940년 9월 17일 중

3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2009, 391쪽. 현재 군사학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교재의 실물은 확인된 것이 없다.

37)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쪽.

경시에 위치한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총사령부만으로 창설되었다. 총사령관은 이청천이 임명되었고, 참모장은 이범석이 맡았다. 창설 당시 인원은 30여명으로,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인물들과 중국의 각종 군관학교를 졸업한 군사간부들이 주축을 이루었다.<sup>38)</sup>

광복군은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병력을 확보하고, 단위부대로 지대를 편성하면서 조직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산서성(山西省)·수원성(綏遠省)·강서성(江西省)·섬서성(陝西省)·안휘성(安徽省) 등지에 병력모집 기구인 징모분처(徵募分處)를 설치하고 초모공작을 펼쳐 병력을 확보하였고, 일본군을 탈출하여 찾아온 한인 청년들도 광복군으로 편입시켰다.<sup>39)</sup> 뿐만 아니라,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한인무장 세력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와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흡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sup>40)</sup> 이를 통해 광복군은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광복군을 중심으로 중국 관내 한인무장 세력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통일과 함께 정치적 통일도 완성하였다.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하여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인 1941년 12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좌우익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임시정부로 합류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up>41)</sup> 그 방향

38)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89~93쪽.

39)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232~241쪽.

40)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54~155·181~184쪽.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광복군 제5지대가 되었고,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41)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144쪽.

은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통합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1941년 12월 김성숙(金星淑)이 이끄는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이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나섰고,<sup>42)</sup>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도 전당대표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로의 참여를 공식 결정하였다.<sup>43)</sup>

이로써 중국 관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두 임시정부로 합류하였다. 좌익진영이 참여해 오면서 임시정부는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1942년 10월 제34차 정기의회부터는 좌익진영 의원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sup>44)</sup>

군사적·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임시정부는 정부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좌우연합정부 구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고,<sup>45)</sup> 부주석제가 신설되고 국무위원 수도 증원되었다.<sup>46)</sup> 또 행정부서도 기존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 5부 외에 학무(學務)·교통(交通)·선전(宣傳)·생계(生計) 등 4부를 증설하였다.<sup>47)</sup> 아울러 상임위원회에 8개 분과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어졌다.<sup>48)</sup>

이러한 변화는 군사 분야에서도 일어났다. 광복군의 직제와 부대개편이 이루어져 부사령직이 신설되어 김원봉이 임명되었고,<sup>49)</sup> 조선의용대가 제1지대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지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2지대, 그리고 징모 제6분처를 제3지대로 편제

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1970, 530~534쪽.

4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7, 2009, 45~57쪽.

4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68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2005, 23~116쪽.

4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73쪽.

4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8~34쪽.

4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73쪽.

4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69~270쪽.

4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60~261쪽.

한 것이다.<sup>50)</sup>

이와 함께 군사교재 편찬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졌다. 그 시작은 ‘군사서적발행안(軍事書籍發行案)’의 제정이었다. 임시정부는 1943년 4월 23일 국무위원회에서 군사서적발행안의 시행을 결의하였다. 여러 군사서적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종류를 선택하여 편찬·발행하기로 한 것이다.<sup>51)</sup> 이는 광복군이 창설되고 좌익진영의 합류로 조직이 확대·개편되면서 군사교재 편찬과 관련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서적발행안이 제정되자, 임시정부는 군사교재 편찬을 전담할 기구 조직에 착수하였다.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찬위원회(軍事學編纂委員會)’를 설치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1944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군무부장이 제출한 군사학편찬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군무부 내에 군사학편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sup>52)</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軍事學編纂委員會條例

- 第1條 軍事學編纂委員會는 軍務部 直轄下에 置함
- 第2條 軍事學編纂委員會는 各種 軍事學 書籍을 編述하며 軍事法規를 起草함
- 第3條 軍事學編纂委員會는 主任 一人, 副主任 一人, 委員 若干人, 幹事 若干人을 置하되 事務의 煩簡을 隨하여 增減함
- 第4條 主任委員은 軍務部長이 兼任하고 副主任委員과 委員은 軍務部長의 薦報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하고 幹事は 主任委員이 任命함

50)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81~214쪽.

5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90쪽.

5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07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 2007, 451쪽.

第5條 主任委員은 會務를 指揮 監督함

第6條 副主任委員은 主任을 輔佐하며 主任委員이 有故한 時는 其 職務를 代理함

第7條 委員은 主任을 輔佐하며 軍事書籍과 軍事法規를 分擔하여 編述 或 起草함

第8條 幹事는 主任委員의 命을 承하여 文書·會計·庶務·書役 等 事務를 分掌함

第9條 處務規正은 另定함

第10條 本 條例는 公佈日부터 施行함<sup>53)</sup>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군무부 산하에 군사학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목적은 각종 군사학 서적과 군사법규를 편찬·기초하는데 있었다.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설치는 임시정부가 군사교재 편찬·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 또 군사서적발행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 그 결과로서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군사교재 편찬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학편찬위원회는 주임 1인, 부주임 1인, 위원 약간인, 간사 약간인으로 이루어졌다. 주임은 군무부장 조성환이 맡았고, 부주임에는 윤기섭이 임명되었다. 편찬위원에는 이복원·이연호(李然皓)·권준(權駿)이 임명되었고, 간사에는 나태섭(羅泰燮)을 선임하였다.<sup>54)</sup> 이들은 모두 군사 분야에 정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특히 이연호·권준·윤기섭의 임명이 주목된다. 이는 좌우세력의 균형과 군사부문의 전문성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기

5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10쪽.

5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08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2011, 315쪽.

때문이다. 이연호는 본명이 이상정(李相定)으로, 주로 중국군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중국 국민정부 정규군 소장(少將)으로 항일 전선에서 활약하였고, 중국 육군참모학교와 유격대훈련학교에서 교수를 지냈다. 또한 1920~30년대 의열단·민족혁명당과 관계를 맺으며 김원봉과 결을 같이 했던 인물이다.<sup>55)</sup> 권준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활동한 경험을 가졌다. 1926년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교하여 북벌전(北伐戰)에서 활약하였고, 민족혁명당에 입당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sup>56)</sup>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와 임시정부 임시편집위원회·민족혁명당 등에서 군사학 편찬을 주도한 경험이 있었다. 독립군·중국군·군사학 전문가로 활약하며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은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를 확립시킬 수 있는 요소였다.

55) 이연호(본명 이상정, 1897~1947)는 남경에 있던 1920년대 후반부터 의열단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1937년 11월 민족혁명당이 남경에서 철수할 때도 김원봉과 함께 이동하였다. 또한 1940년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좌익세력의 임시정부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최기영, 「李相定(1897~1947)의 在中獨立運動」, 『歷史學報』 200, 2008, 345~370쪽;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참조).

56)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256~258쪽.

〈표3〉 군사학편찬위원회 위원 명단(1944. 2)

직위	성명	연령	선임년월일	경력
주임	조성환 (曹成煥)	70	1944년 2월 8일	신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신민부,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장
부주임	윤기섭 (尹琦燮)	58	1944년 2월 8일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회, 임시 정부 군무장,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위원	이복원 (李復源)	59	1944년 2월 8일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 원,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위원	이연호 (李相定)	48	1944년 2월 8일	중국 국민혁명군, 중국 육군참모학교, 유격대훈련학교, 민족혁명당, 임시의정원 경상도의원
위원	권 준 (權 駿)	50	1944년 2월 8일	신흥무관학교, 의열단,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민족혁 명당, 임시정부 내무부 차장
간사	나태섭 (羅泰燮)	44	1944년 2월 8일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한국국민당청년단,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원

군사학편찬위원회가 설치되자, 군무부는 1944년 공작계획대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다. 군무부는 1944년 4월 1일 임시의정원 제36차 회의에서 통과된 군사정책 실시안에 근거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공작사항 13개조와 실시보취(實施步驟) 3개조가 제시된 공작계획대강에는 국외에서 활동 중인 무장단체의 임시정부 편입 추진, 한국광복군9개 행동준승 취소,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실시 등 임시정부가 당면한 군사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각종(各種) 군사서적(軍事書籍)을 편술(編述)하며 군법초안(軍法草案)을 기초(起草)할 것”이라고 하여 군사교재의 편찬과 관련된 사항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관심 속에 추진되었던 군사학편찬위원회는 1944년 9월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편찬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던 이연호·권준·나태섭이 1944년 9월 6일부로 면직되고, 권양무(權揚茂)·박건웅(朴健雄)·이충모(李忠模)가 편찬위원에,

군무부 총무과 과장이던 염온동(廉溫東)이 간사로 임명된 것이다. 기존 편찬위원 중 윤기섭과 이복원만이 유임되었다.<sup>57)</sup> 이렇게 단기간에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인사 개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942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광복군 9개 행동준승 취소를 위한 임시정부의 노력이 1944년 8월에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른 정책변화 등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된다.<sup>58)</sup>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은 군사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적었다. 박건웅만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과 중국군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 권양무·이충모는 군사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는다.<sup>59)</sup> 이전의 구성원들과

5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24쪽.

58) 인사 개편 이후 이연호·권준·나태섭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이연호는 임시의정원의 상임위원회 제4과(군무·교통)에서 김원봉·유동열·이청천·金鐵男과 함께 활동하며 군사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 2005, 123쪽). 권준은 내무부 차장으로 활동하다가 우한지역 교포선무단 단장과 광복군 제5지대장을 역임하였다(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256~258쪽). 나태섭은 중경 거주 한인들의 생계유지와 식량·보건·아동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생계설계위원회부위원장을 거쳐 화중한교선무단에서 한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썼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18쪽 ;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532~533쪽).

59)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433~437쪽. 임시정부에서 권양무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1944년부터이다.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내무부 차장·경무부 과장·경위대장·義勇警衛團長 등을 역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306쪽). 이충모는 함경남도 흥원군 출신으로, 조선노동총동맹·조선노동당·조선공산당 등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이후 만주와 러시아를 드나들며 활동하였고, 1944년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2006, 312~313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008, 221~224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4, 2009, 288쪽 ;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32(中國篇 7), 2007, 36~38쪽).



비교해서 역량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표4〉 군사학편찬위원회 위원 명단(1944. 9)

직위	성명	연령	선임년월일	경력	비고
주임	김원봉 (金元鳳)	47	1944년 9월 6일	신흥무관학교, 의열단, 황포군관학교,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 한국광복군 부사령	신규
부주임	윤기섭 (尹琦燮)	58	1944년 9월 6일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임시정부 군무장,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무부 차장	유임
위원	이복원 (李復源)	59	1944년 9월 6일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군사학편찬위원,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유임
위원	권양무 (權揚武)	미상	1944년 9월 6일	임시정부 내무부 차장, 경무부 과장, 경위대장, 의용경위단장	신규
위원	박건웅 (朴健雄)	39	1944년 9월 6일	황포군관학교, 의열단,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임시의정원 의원	신규
위원	이충모 (李忠模)	미상	1944년 9월 6일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	신규
간사	염은동 (廉溫東)	47	1944년 9월 6일	임시의정원 의원, 한국혁명당, 철혈단, 광복군 총사령부 관리과장, 군무부 총무과장	신규

인적 구성에 변화를 겪었지만 군사학편찬위원회는 말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군무부에서는 공작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알렸다. 군사학편찬위원회에서 이미 보병조건·진중요무령·지형학·측량학·사격교범 등을 편찬하였고 현재는 보병입서(步兵入書)를 번역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sup>60)</sup> 아마

6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2005, 119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73쪽. 현재 군사학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교재의 실물은 확인된 것이 없다.

도 계속 직책을 유지하고 있던 윤기섭과 이복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군사학편찬위원회는 1945년 해방직전까지 유지·운영되었다. 1945년 4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추인안 제62조와 제67조에 공군설계위원회와 군사학편찬위원회를 각 조례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1)</sup> 이는 여전히 임시정부가 군사학편찬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을 위해 설치·운영했던 편찬기구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임시정부는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사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군사간부와 병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군사교재 제작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재의 편찬과 발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그 시작은 ‘임시편집부’였다. 임시편집부는 1920년 5월 1일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윤기섭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근하·강영한·오필영·장의주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군사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교재 발간을 위한 법령

6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2005, 131~132쪽.

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임시편집부는 1920년 10월부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교령 제11호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 발표를 계기로 ‘임시편집위원부’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군사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고 편집·발행하는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22년 2월에는 교령 제3호로 법령을 개정하여 부위원장직을 증설하고 위원수를 확대하였다. 관련 규정의 보강과 인력 증원을 통해 임시편집위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교재 제작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 결과 1924년 5월에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래 임시정부가 극심한 침체상태에 접어들면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국제정세도 임시정부의 사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군사정책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시정부에서 다시 군사교재 편찬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전시체제에 맞는 군사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사위원회규정이라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938년 ‘군사학편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군사위원들이 참여하였다. 모두들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실전경험을 가진 군사전문가들로, 군사학 편찬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군사학편수위원회는 군사학 도서의 편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보병조전』·『진중요무령』·『사격교범』·『유격전술』 등의 편찬을 위해 힘썼고, 이들의 활동은 한국국민당 기관지인 『한민』

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사교재 편찬기구 운영은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에도 이어졌다.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여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추진하였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무장력을 갖추었고, 좌익진영의 합류로 군사적 통일도 이루었다. 1943년 4월에는 ‘군사서적발행안’을 제정하여 군사교재 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재 편찬을 전담할 조직인 ‘군사학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임시정부가 군사교재 편찬·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점, 또 군사서적발행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 그 결과로서 기구가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군사교재 편찬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학편찬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인적변화를 겪었지만, 1945년 4월 이후까지 유지·운영되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해방되기 직전까지 군사교재 편찬 기구를 운영하였다. 비록 정식 편제된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유지·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되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보병조전초안』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에서 군사교재 편찬·발행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朝鮮總督府, 「上海假政府의 過激派 및 社會主義者와 提携 件, 上海에서 爆彈破裂에 관한 佛國官憲의 의향, 密偵暗殺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 雜件-朝鮮人の 部-鮮人과 過激派 1』, 1920.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32(中國篇 7), 2007.

<http://uci.or.kr//G901:A-0006177731@N2M>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3·6·8·9·19·22·27·31·34·35·37·45, 2005~2011.

<http://uci.or.kr//G901:A-0006106069@N2M>

김병조 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http://uci.or.kr//I012:A+SKT-0004514738@N2M>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2·7·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202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3787243@N2M>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7·10, 1972~1976.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http://uci.or.kr//G901:A-0008573907@N2M>

### 2. 단행본

가토 요코 지음·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http://uci.or.kr//G701:C-00073918559@N2M>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김학규, 「白波自敍傳」,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http://uci.or.kr//G701:B-00124312234@N2M>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요시카와 요시히로 지음·손승희 옮김, 『중국근현대사』 3, 삼천리, 2018.
- 조필균, 『임시정부 보병조건초안의 현대적 해석』, 선인, 2021.  
<http://uci.or.kr//G901:A-0010720657>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http://uci.or.kr//G901:A-0004606989@N2M>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_\_\_\_\_, 『(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 3. 논문

-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건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육군군사연구소, 2017.  
<http://doi.org/10.17934/jmhs..144.201712.151>
-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UCI : G901:A-0005982705
- 양태석, 「晴簑 曹成煥(1875~1948)의 抗日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5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UCI : G704-001258.2010..53.001
- 조필균, 「항일무장독립군 군사교범 『보병조건초안』의 현대적 해석과 군사사학적 함의 : 『보병조건』과 『보병조건초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2권 통권 제14호, 2018.  
<http://doi.org/10.34166/rokms.2018.7.2.185>
- 최기영, 「李相定(1897~1947)의 在中獨立運動」, 『歷史學報』 200, 역사학회, 2008.  
UCI : G704-000356.2008..200.018
- \_\_\_\_\_, 「李復源의 유학과 재중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http://doi.org/10.15799/kimos.2012..42.005>

<Abstrack>

##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Min-ho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ompil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pilation of military textbooks and the process of their change.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first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1920,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in the 1930s, 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changes of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in the 1940s were examined.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clarify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cognized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as an important activity, and that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ilitary activity policy.

First of all, data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were investigated. Various data collection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ata Collection that can grasp the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ere targeted. In addition, the memoir of a participant in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was used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opera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o clarify its activities. Through this examination,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its changes.

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until just before its liber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perated a military textbook compilation

organization. Although it was not operated consistently as an official organization, it was established fluid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ontinued its activities until just before liberation in 1945. In the process, it also achieved the result of *Bobyungjojeonchoan*.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sistent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piling military textbooks.

Keywords: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 The Provisional Editorial Board,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 The Military Academic Compilation Committee